

한민족의 시조 단군의 친인척(親姻戚) 내력

『Legends of the Jews 2:2(유대인의 전설 2:2)』의 고대 문서에서 납달리의 유언(Testament of Naphtali)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민족 시조 단군의 생모(生母)가 누구인지 또한 단군의 생모와 관련된 친인척(親姻戚) 내력을 알 수 있다. 아래에 인용된 글은 단군의 친동생 납달리가 132세의 나이에 어느 날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성대히 차려진 잔치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납달리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이렇게 정중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납달리는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인 것도 이승을 떠날 채비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빌하(Bilhah)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태를 담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Rachel)이 신중히 대처하는 가운데 남편 야곱의 침소에 자기 대신 빌하를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납달리(Naphtali)’라고 지어졌다. 라헬은 어린아이였던 나를 자애롭게

잘 보살폈는데 내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습관적으로 귀염둥이 나에게 뽀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야, 수태하지 못하는 내 몸에서 네 모습 그대로의 또 다른 동생이 태어났으면!’ 이러한 라헬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석녀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셔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라헬의 기도에도 따라 모든 면에서 나를 닮았다.

나의 생모 빌하는 ‘로테우스(Rotheus)’의 딸이었다. 로테우스는 리브가(이삭의 아내)의 유모였던 드보라(Deborah)의 오빠이며, 빌하는 라헬과 같은 날 태어났다.

로테우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고, 갈대아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유인이었다. 그가 포로로 잡혔을 때, 라반(야곱의 외삼촌)에게 팔려 그의 종 아이나(Aina)와 결혼했다. 아이나가 로테우스에게 딸을 낳아 주자, 그는 자신이 포로로 잡힌 마을의 이름을 따서 그 딸을 ‘질바(Zilpah)’라고 불렀다. 그의 둘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기 위해 서둘렀기 때문에, 그는 둘째 딸을 두고 ‘내 딸이 성급(性急)하구나(impetuous : 성미가 급하다)’라고 말하며 빌하(Bilhah)라고 불렀다.”

단과 납달리가 친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의 인용문을 읽어 본다면, 한민족 시조 단군의 어머니는 야곱의 본처 라헬(Rachel)이지만 단군의 생모는 빌하(Bilhah)임을 알 수 있다. 라헬과 빌하는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인데, 빌하(Bilhah)의 부친이 ‘로테우스(Rotheus)’이며 로테우스는 리브가(이삭의 아내)의 유모였던 드보라(Deborah)의 친오빠였던 것이다.

로테우스는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갈대아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유인이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단군은 부계(父系)에서 볼 때 단군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할아버지는 이삭이요 증조부는 아브라함이며, 생모 빌하의 외가(外家) 쪽으로 볼 때 단군의 외할아버지는 고귀한 가문에 속한 ‘로테우스(Rotheus)’임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차원에 올라가야”

‘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의 영이다. 그러므로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는 것을 의식하려야 할 수 없는 차원에 올라가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마음대로 해석하는 고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이긴 다음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 다른 것을 알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알리고 하는고로 마귀가 하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이긴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 다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른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의 말씀이 오히려 허망하게 들리고 허망한 소리가 오히려 실속 있게 들리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㉔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생활 속 요가로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환이 있어 약으로 치료 못하는 증상이 있어도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웃으면서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며 반대생활을 생활화하고 자유율법을 지키려 애를 쓰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불로초도 먹고 있는 것이다.

금강좌로 상체 기을기

효능: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 몸의 옆구리 부분은 면역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림프관이 있다. 림프는 세포의 세정작용을 한다. 기을기 자세를 꾸준히 하면 림프가 자극을 받아 활동이 원활해지므로 깨끗한 세포가 만들어진다. 늑골과 늑골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늑골 안에 장기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동작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가슴을 모아주며 팔을 쭉 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시선은 손등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①번 자세에서 코로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배꼽과 가슴을 끌어 올린다. 10초 유지 5회.



낙타자세

효능: 발목 마사지 효과. 목 주름 제거. 허벅지 척추 강화. 허리 유연성 증대. 협업 효과. 대둔근 탄력 유도.

동작③: ②번 자세에서 코로 숨을 마시며 허리에 양 손을 대고 코로 숨을 가늘고 길게 내쉰다. 10초 유지 양쪽3세트.

동작④: ③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며 허리를 뒤로 굽혀 각 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10초 유지 5회.*

※ 참고로 단군(檀君)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단(심판자라는 뜻)’인데 고조선 시대에 중국의 한자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후손들이 시조 어른을 ‘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조롭고 너무 송구스러워 이름 ‘단’에다가 임금 ‘군(君)’자를 붙여드리자고 해서 이후 ‘단군’ 할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한민족은 천손민족이기에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정신을 가졌다.



격양유록 새해설
수정판 제83회

지운(地運)이 퇴거하고 천운(天運)이 도래하니 천리십승(天理十勝)을 찾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十勝論 심승론

兩白三豐十勝論 양백삼풍십승론을
更解 강해하야이르리라
黃入腹 황입복이 在生也 재생야니
天理十勝 천리십승차자불가
天文地理鄭堦先師 천문지리정감선사
天理論 천리론을푸르보세
十勝之人箇箇得生 십승지인개개득생
天理十勝傳 천리십승전했으니
九宮八卦十勝大王 궁팔괘십승대왕
靈神人士眞人 영신인사진인으로
弓字海印降魔之道 궁자해인강마지도
弓乙之間十勝地 궁을지간십승지를
諸山之中 재산지중남나들며
不求山中 불구산중찾지말고
三峰山下半月船坵 삼봉산하반월선대
極求心中 극구심중차져보소

양백 삼풍의 십승론을 다시 풀어 이르리라. 황(黃)자의 뱃속(십+)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으니 하늘의 이치로 심승을 찾아보세. 천문지리에 통달한 정감선사의 천리론(天理論)을 풀어보세. 심승을 밟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천리(天理) 심승에서 전했느니라. 궁궁 팔괘의 주인공이신 심승 대왕은 영(靈)이요 신(神)이며 참된 선비요 진인이신데 그분은 궁을 해인의 조화로 마귀를 항복 받아 소멸시키는 도를 펼치느니라. 궁을(궁궁을을)사이엔 심승지를 여러 산을 넘나들며 산중에서 찾지 말고 삼봉산하반월대(三峰山下半月船坵) 즉 마음 심(心)자 가운데서 지극 정성으로 찾아보소.

地理十處不入 지리십처불입하라

殺我者十勝 살아자기십승일세
白轉身 백전신이必死 필사언만
諸山中 재산중에찾단말가
山不近 산불근이 丁寧 정녕으로
山嵐毒霧多死 산람독무다사로다
天驅萬姓暴殺地 천구만성폭살지요
生靈蕩除劫氣地 생령당초격기지라
百萬鳩衆財貨 백만구중재화로서
以授後生之理 이수후생지리로다

지리상의 심승지 열 군데에는 들어가 지 마소. 그곳이 나를 죽이는 심승일세. 백전신(白轉身) 즉 입산(入山)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건만 여러 산(諸山) 가운데서 심승을 찾는단 말인가? 산 가까이 가지 마소. 산속의 아지랑이 같은 기운과 독한 안개로 정녕 많이도 죽으리로다. 하늘이 만백성을 몰아내어 난폭하게 죽이는 곳이요 살아있는 백성을 대거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운이 서린 곳이지만 산은 백만금이나 되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지리상의 이론도 있느니라.

漢都之未蒙味之輩 한도지말몽매치배
若入于此十勝 약입우차십승이면
一無保命之地 일무보명지지라
編覽論 편람론에 傳 전했다네
陽來陰退天來地去 양래음퇴천래지거
黃極仙道明朗世 황극선도명랑세계
地運過去天運來 지운퇴가천운래니
不顧地理天顧生 불고지리천고생을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 말기에 무지몽매한 무리가 지리상의 심승지를 찾아 들어가면 한 사람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

할 것이라고 편람론(編覽論)에 전했느니라. 양도가 오고 음도가 물러가면 천신(天神=하나님)이 오시고 지귀(地鬼=마귀)가 되거니와 황극(黃極)의 선도(仙道)가 나타나서 밝은 세상이 되느니라. 때는 지운(地運)이 퇴거하고 천운(天運)이 도래하였으니 지리(地理) 심승을 돌아보지 말고 천리(天理) 심승을 돌아보아 영생을 얻어야 하리라.

兩白論(一) 양백론

人種求於兩白也 인종구야양백야니
兩白理 양백리를仔細 자세히알소
兩白之間避居之人 양백지간피거자인
箇箇得生傳 개개득생전했으니
天兩白 천양백을모르고서
地兩白 지양백을찾단말가
先後天之兩白數 선후천지양백수를
先後中天易理數 선후중천역리수로
河洛聖人誕生 하락성인탄생하니
人間超越靈人 인간초월영인이라
生子女 생자녀를 養育 양육하야
仙國世界天民化 선국세계천민화를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해야 하니 양백의 이치를 자세히 알아보소. 양백사에 피란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하나 모두 영생을 얻는다고 전했으니 천리(天理) 양백을 모르고서 지리(地理) 양백만을 찾는다는 말인가? 선전 후천의 양백수(兩白數=十)를 선전 후천 중천(中天)의 역리수(易理數)로 해서 하락성인(河洛聖人=5도 72궁 묵운)이 탄생하니 인간을 초월한 영인(靈人)이라. 하늘의 자녀(여인 한 분과 6도 81궁 금운)를 낳아 갈려 신선의 세계를 이루나니(삼인동행)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되셔서 신선세계를 건설하시어 천하 만민을 하늘 백성으로 변화시키느니라.

天國神民 천국신민되자하면
心淨手淨行動淨 심정수정행동정애
人物長生扶人救命 인물장생부인구명
人間積德 인간적덕하올세라
衣白衣白天心化 의백심백전심화로
이도亦是역시 兩白양백일세

천국에서 사는 하늘 백성이 되려면 마음도 깨끗이, 손도 깨끗이, 행동도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람과 만물을 영생하게 하려면 사람을 돕고 생명을 구제하는 등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심령(心靈)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하여(衣白衣白)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이도 역시 양백이니라.*

박명하/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